

강동지역에서 발굴된 신석기시대유적들이 가지는 문화사적의의

강 진 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력사유적유물들은 우리 선조들이 투쟁과 창조적활동을 통하여 이룩한 귀중한 유산이며 후세에 길이 전해갈 민족의 재부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역사는 선조들이 이룩해놓은 귀중한 유산을 통하여 전해진다고 말할 수 있다.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에서는 주체83(1994)년 9월—주체84(1995)년 9월에 립경산동굴유적을 발굴하였다.

립경산동굴유적은 평양시 강동군읍의 한 자연동굴에서 알려진 신석기시대유적이다. 이 유적에서는 사람뼈 20점, 질그릇조각 200점, 짐승뼈 1점이 발굴되였다.*

*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88(1999)년 제8호 141~145페이지

그후 김일성종합대학 력사학부와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에서는 주체99(2010)년 5월—주체102(2013)년 8월에 주현동유적을 발굴하였다.

주현동유적은 평양시 강동군 란산리 주현동일대의 한 자연동굴에서 알려진 신석기시대유적이다. 이 유적에서는 사람뼈 260점, 질그릇조각 22점, 치레거리 1점, 조개칼 2점, 짐승뼈 85점(불에 탄 뼈도 포함), 석재 3점이 발굴되였다.*

*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102(2013)년 제4호 163~165페이지

강동일대에서 발굴된 신석기시대유적들은 우리 나라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전통을 전해주는 귀중한 유산이며 신석기시대 문화연구에서 매우 가치있는 실물자료이다.

이 글에서는 강동일대에서 발굴된 신석기시대유적들의 문화사적의의에 대하여 논하려고 한다.

강동일대에서 발굴된 신석기시대유적들의 문화사적의의는 첫째로, 그것이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류역에서 창조된 고대문화의 연원을 밝히는데서 중요한 실물자료로 된다는데 있다.

이미 강동일대에서는 단군릉이 발굴됨으로써 지난 시기 신화적인 인물로 간주되어온 단군이 실재한 력사적인물이였다는것이 밝혀졌으며 우리 나라는 반만년의 유구한 력사와 찬란한 문화를 가진 동방의 선진문명국이였다는 사실과 함께 평양이 조선민족의 발상지이고 첫 국가의 수도였다는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되였다.

잘 알려진바와 같이 강동일대의 단군릉주변에서는 첫 국가발생을 전후한 력사적시기의 문화를 전해주는 유적들이 발굴되였다.

강동일대에서는 이러한 유적들과 함께 최근에 립경산동굴유적, 주현동굴유적과 같은

신석기시대유적들도 발굴되었다.

새로 발굴된 신석기시대유적들은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류역이 고대시기뿐 아니라 원시시대에도 발전된 문화가 창조된 력사의 고장임을 전해주는 동시에 이 고장의 고대문화가 다름아닌 이 원시문화를 뿌리로 하여 꽃피난 독자적인 문화임을 다시한번 뚜렷이 확증해준다.

그 문화사적의의는 둘째로, 그것이 현대조선사람의 시조류형인 조선옛류형사람의 인류학적특징과 그 형성문제를 과학적으로 해명하는데서 중요한 실물자료로 된다는데 있다.

인류의 진화발전과정에 피줄의 갈래가 뚜렷이 구별되고 겨레의 공통성이 이룩되던 시기는 다름아닌 신석기시대였다. 다시말하여 일정한 지역과 피줄갈래에 따르는 주민집단들의 인류학적특징은 바로 신석기시대에 기본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므로 신석기시대는 우리 겨레, 조선사람의 기원문제를 해명함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력사적시기에 해당한다.

림경산동굴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 조선옛류형사람에 속하는 1개체분의 머리뼈와 아래턱뼈가 나왔다. 주현동유적에서는 신석기시대 조선옛류형사람에 속하는 9개체분의 유골들이 나왔다. 특히 주현동유적에서 나온 유골들에는 머리뼈와 함께 몸뼈들이 비교적 온전한 상태로 보존된 개체들이 포함되어있는것으로 하여 조선옛류형사람의 전반적인 인류학적특징을 밝히는데서 매우 가치있는 실물자료로 된다.

림경산동굴유적과 주현동유적에서 발굴된 조선옛류형사람은 머리뼈가 길지도, 넓지도 않고 매우 높으며 이마가 곧고 얼굴뼈가 중간정도로서 그리 높지 않다. 그리고 얼굴뼈가 머리통뼈보다 훨씬 넓고 눈확이 매우 깊으며 코가 중간크기이고 입천장이 넓은것 등의 인류학적특징을 가지고있다.

바로 조선옛류형사람의 이러한 인류학적특징은 우리 강토의 다른 신석기시대유적들에서 알려진 조선옛류형사람에게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 《김일성종합대학학보》(자연과학) 김일성종합대학출판사 주체95(2006)년 제8호 151~159페이지

그러나 아시아옛주민집단들 가운데서 우리 강토의 이웃에서 형성된 신석기시대사람들인 반과류형을 보면 머리통뼈와 얼굴뼈가 다같이 높고 바이칼류형은 머리통뼈가 낮지만 얼굴뼈는 높으며 쓰구모류형은 머리통뼈와 얼굴뼈가 다같이 낮은 특징을 가지고있다.*

* 《아시아몽골로이드의 분류와 계보학의 몇가지 문제》(로문) 과학출판사 1984년 38페이지

이 사실은 신석기시대 조선옛류형사람이 다른 지역의 옛주민집단과 뚜렷이 구별된다는것을 증명해준다.

강동일대의 신석기시대 조선옛류형사람은 머리뼈가 상당히 높고 얼굴뼈가 중간정도로서 그리 높지 않은것 등의 인류학적특징에 의하여 대동강류역에서 발굴된 구석기시대의 신인단계 인류인 룡곡사람, 만달사람과 혈연적으로 밀접한 계승관계를 가지고있다.

한편 조선옛류형사람과 같이 머리뼈는 상당히 높지만 얼굴뼈는 중간정도로서 그리 높지 않으며 이마가 곧고 눈확이 매우 깊으며 얼굴뼈가 머리통뼈보다 넓은것 등의 인류학적특징이 현대조선사람에게서도 뚜렷이 나타난다.*

* 《조선사람의 기원》 사회과학출판사 1989년 125~238페이지

구석기시대의 신인단계 인류인 룡곡사람과 신석기시대 조선엠퉁형사람, 현대조선사람의 인류학적특징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공통성들은 반드시 혈연적인 계승성이 직접 이어진 경우에만 가능한것이다.

물론 현대조선사람은 머리뼈가 짧고 단두화의 경향성이 나타나는데서 룡곡사람과 다르다. 하지만 이런 경향성은 구석기시대이후에 나타난 인류학적현상이므로 신석기시대 조선엠퉁형사람에게서 보이는 중간머리형의 특징은 이 강토에서 진화되어온 신인단계의 인류가 현대사람으로 이행하던 단계의 인류학적특징의 하나로 볼수 있는것이다.

결국 머리뼈가 상당히 높고 얼굴뼈가 중간정도로서 그리 높지 않은것 등은 조선사람의 기원과정에 혈연관계의 계승성을 보여주는 인류학적특징인 동시에 조선사람의 기원의 유구성, 단일성과 함께 조선사람의 기원과정이 이 강토에서 이루어진 사실을 실증해준다.

강동일대에서 발굴된 신석기시대 조선엠퉁형사람에 대한 연구결과와는 신석기시대에 와서야 우리 강토에 비로소 산지사방에서 사람들이 몰려와 살기 시작하였으며 그후 각이한 혈통갈래의 주민집단들이 서로 뒤섞여 조선사람이 형성되었다고 하던 제국주의어용사가들과 대국주의사가들의 주장이 반동적인 궤변이었다는것을 다시한번 명백히 보여주고 있다.

그 문화사적의의는 셋째로, 그것이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류역의 신석기시대 질그릇갓춤새의 특징을 과학적으로 해명하는데서 중요한 실물자료로 된다는데 있다.

림경산동굴유적과 주현동유적에서는 여러 개체분의 신석기시대 질그릇들이 나왔다.

이 질그릇갓춤새가 전형적인 새김무늬그릇으로 특징지어지는것은 그것을 만들어쓰던 사람들의 전통적인 취미와 관습을 보여준다.

신석기시대의 전형적인 새김무늬그릇으로 특징지어지는 질그릇갓춤새는 조선반도를 중심으로 하는 대룡하이동부터 남연해주에 이르는 송화강이남까지 아시아대륙동북부지역의 고유한 문화적특징이며 그 분포령역은 조선엠퉁형사람들이 퍼져살던 고장이었다.*

* 《조선고고학총서》 10 원시편 사회과학원 주체98(2009)년 129~190페이지

한편 우리 강토에서 신석기시대문화가 특별히 발전한 지역은 운하문화의 분포령역이었는데 이 지역에서 신석기시대 전기문화는 B.C. 7000년기부터 B.C. 6000년기 전반기까지, 중기문화는 B.C. 6000년기 후반기부터 B.C. 5000년기 전반기까지, 후기문화는 B.C. 5000년기 후반기부터 B.C. 4000년기 전반기까지에 해당된다.

운하문화는 둥근밑그릇이 주류를 이루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다른 지역 신석기시대문화에 속하는 미송문화나 서포항문화와 구별된다.*

* 《고고민속론문집》 8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년 5~34페이지

강동일대에서 발굴된 신석기시대의 질그릇갓춤새를 보면 둥근밑그릇이 주류를 이루고있는것인데 이것은 운하문화의 고유한 특징이었다.

질그릇들을 보면 통이 깊은 화분형의 큰것들도 있고 단지처럼 작은것들도 있는데 대부분 바탕흙에 섞음재로 활석을 첨가하거나 일부 바탕흙만 가지고 만든 둥근밑그릇들이다. 그 결면둘레에는 옷띠와 아래띠에 6~7cm길이의 평행사선들이 서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그어져 전나무잎모양 또는 샛자리모양을 현상시키는 새김무늬들이 나타난다.

이 새김무늬들을 보면 아구리가 2~3cm정도 빈 바탕을 남기고 그어 새겨내려간것, 옷평행사선띠와 아래평행사선띠사이에 일정한 여백을 두고 무늬를 그어 새긴것, 무늬를 질서있게 그어 새긴것과 무질서하게 그어 새긴것 등의 전나무잎무늬와 옷띠의 평행사선이 군데군데 아래띠로 꺾어들게 그어 새긴 삿자리무늬로 되어있다.

림경산유적과 주현동유적의 질그릇들에는 섞임채뿐아니라 무늬도안과 구도의 무늬새김형식도 신석기시대 중기문화의 고유한 특징들이 뚜렷이 나타난다.

그것은 우선 전나무잎무늬의 새김형식을 통하여 알수 있다. 전나무잎무늬는 신석기시대에 우리 나라의 어느 문화류형의 질그릇에서나 볼수 있는 새김무늬이지만 그것은 신석기시대 중기부터 증가되었다.

운하문화의 경우 전나무잎무늬는 신석기시대 중기의 이른시기까지 선행단계의 무늬도안과 구도를 리용하였지만 점차 그 새김형식이 변화되어 가로놓인 전나무잎무늬를 그어 새긴것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고 신석기시대 후기에는 그것이 가로놓인 전나무잎무늬만으로 단일화되었다.*

* 《조선고고학총서》 10 원시편 사회과학원 주체98(2009)년 124페이지

또한 신석기시대 전기의 새김무늬그릇갓춤새는 어느 문화류형의것을 막론하고 주로 눌러 새기는 수법을 쓰면서 그어 새기는 수법을 배합한것이 주류를 이루지만 신석기시대 중기부터는 반대로 그어 새기는 수법을 주로 쓰면서 눌러 새기는 수법을 배합한것이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여기서 주로 그어새기는 수법을 쓰면서 눌러 새기는 수법을 배합한것은 운하문화 3기에 대표적인것이였다.*

* 《조선고고학총서》 10 원시편 사회과학원 주체98(2009)년 120페이지

섞임채도 역시 신석기시대 전기에는 여러 문화류형의 질그릇갓춤새에서 달랐지만 신석기시대 중기부터 같은 섞임채를 많이 쓰는대로 변천되어가고 신석기시대 후기에는 모래만으로 단일화되었다.*

* 《조선고고학총서》 10 원시편 사회과학원 주체98(2009)년 96페이지

림경산동굴유적과 주현동유적에서 발굴된 질그릇겉면에 그어 새긴 무늬들과 질그릇섞임채들은 신석기시대 중기문화에 고유한 무늬도안과 구도의 무늬새김형식과 수법 및 섞임채의 특성을 반영하고있다고 볼수 있다.

그것은 우선 전나무잎무늬의 새김형식에서 명백히 나타나기때문이다.

질그릇들의 겉면에 나타나는 전나무잎무늬와 삿자리무늬들의 새김수법을 보면 주로 그어 새기는 수법을 쓰면서 여기에 눌러 새기는 수법을 배합한것이 특징적이다. 결국 이러한 질그릇갓춤새는 강동일대와 린접하고있는 상원일대의 룡곡 제2문화층에서 알려진 질그릇갓춤새와 마찬가지로 신석기시대 중기의 운하문화 3기에 해당된다고 볼수 있다.

그 문화사적의의는 넷째로, 그것이 우리 나라 신석기시대의 무덤형식과 장법, 매장풍습 등을 밝히는데서 중요한 실물자료로 된다는데 있다.

유물들의 출토정형으로 보아 주현동유적은 신석기시대 주민들의 거처지가 아니라 무덤이라고 인정된다.

유적에서 나온 9개체분의 사람뼈가운데서 2개체분은 해부학적구조에 부합되게 흐트

러지지 않은 상태로 머리뼈와 등뼈, 어깨뼈, 꺾쇠뼈, 팔뼈, 갈비뼈, 골반뼈, 다리뼈 등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지금까지 신석기시대 동굴유적들에서 사람뼈들이 나왔지만 주현동유적에서와 같이 거의 완전한 상태로 드러난것은 없다. 그것은 이 사람뼈들이 정히 매장된 피장자들임을 보여준다. 수많은 사람뼈들이 일정한 구역에서 집중적으로 나오고 그것도 일정한 방향과 간격으로 놓여있는것도, 질그릇을 비롯한 유물들이 사람뼈가 나온 구역에 집중되어있는것도 특이한 현상으로서 무덤에서만 볼수 있다.

이 유적에서 신석기시대의 대표적인 로동도구나 식생활에 필요한 다양한 유물들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것은 신석기시대 집자리들에서 각이한 로동도구, 식생활과 관련된 다양한 유물들이 나온것과 차이나는 현상이다.

다른 나라의 신석기시대의 무덤들에서도 같은 현상을 찾아볼수 있다. 반파유적에서는 250여기의 무덤이 드러났는데 겨묻거리는 질그릇이 기본이고 석기들은 보이지 않는다. 이 무덤들은 동서 일직선상에 배열되고 무덤사이거리가 대체로 일정하다. 또 다른 신석기시대의 원군묘무덤처럼 남북으로 6줄 배열된것과 황진촌무덤처럼 길이 10m, 너비 3m, 깊이 0.3~0.7m 되는 무덤안에 다시 5개의 무덤을 파서 합쳐묻기한것도 있다. 주현동유적의 무덤은 적당한 규모로 구덩이를 파고 주검을 안치하는 방법으로 무덤을 썼다고 인정되는데 그후 자연적인 영향을 받아 일정한 정도 다져지고 변위된 결과 무덤구획이 동굴안의 한쪽 벽에 치우치게 되었다. 따라서 무덤형식과 규모를 정확히 알수 없고 유물들의 놓임상태가 무질서하고 규칙성이 없게 되었다. 다만 비교적 잘 보존되어있는 2명의 피장자들은 각각 장년남자로서 일정한 간격으로 묻혀있었는데 머리가 놓인 방향은 남서쪽이고 묻는 형식에서는 바로 눕히고 다리를 편 자세였다고 인정된다. 하나의 무덤에 여러 개체의 주검을 함께 묻는 매장법은 씨족공동묘지를 쓰던 당시 풍습의 일단으로 볼수 있다.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류역에서 신석기시대의 무덤이 발굴된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우리 나라의 신석기시대문화에 대한 리해를 깊이하는데서 가치있는 자료로 된다.

주현동유적의 발굴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신석기시대문화에서 주로 산지에 사는 주민들의 경우에는 경치가 좋고 아늑한 동굴안에도 무덤을 썼으며 장법은 다른 지역의 신석기시대와 비슷하였다는것을 알수 있다.

강동일대에서 발굴된 신석기시대유적들은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강류역에서 신석기시대에 이미 조선옛류형사람들이 항구적인 정착생활을 하면서 원시농업을 기본으로 하는 다각적인 생산활동을 벌렸다는것을 전해준다.

참으로 강동일대에서 발굴된 신석기시대유적들은 우리 선조들이 신석기시대에 어떤 문화를 창조하고 어떻게 생활하였으며 어떠한 길을 걸어 발전하여왔는가 하는것을 보여주는 귀중한 실물자료로서 커다란 문화사적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앞으로 위대한 수령님들의 유훈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말씀을 높이 받들고 우리 민족의 유구성과 단일성을 론증할수 있는 력사유적유물발굴과 연구사업을 더욱 심화시켜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조선민족제일주의로 무장시키는데 적극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